

# 韓國白衣에 영향을 준 社會的 要因에 관한 研究

李 明 姬

明知大學 家政學科 講師

## A Study on the Social Reasons Affecting to Korean Baik-Eui

Lee Myoung Hee

Lecturer, Dept. Home Economics, Myoung Ji University

(82.4.6 접수)

### Abstract

Baik-Eui is the white clothes and Korean typical way of wearing, Baik-Eui was used by the over 80~90 percents of people, which proves that Baik-Eui was the very clothes of common people. Moreover, even King himself in Koryo Dynasty is said to have worn white clothes when he was out of official hours. And wearing Baik-Eui was regarded as polite manners among the noble men in Yi Dynasty in spite of strict prohibitions of wearing it. That fact proves that it was loved by Korean people in general.

Baik-Eui can be found its origin from many peoples of North East Asia in ancient time. Some say that wearing Baik-Bui is considered as a kind of worship of the sun, or purity of Korean people.

But from the economical point of view, Baik-Eui was primitive in it's color. It means that their clothes were made from original clothes, not dyed. This study on the social reasons affecting to Baik-Eui,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is Baik-Eui had been originated from the ancient economical and rigid circumstances of society. Everlasting poverty and deprivation of joy in life of Korean naturally made them have inclination of wearing it
2. Also common people were restricted in their choice of dress color by government. Even rich could not wear a colored clothes except the dyes permitted by them.
3. Socially, People wore white clothes through various kinds of ceremony, among which funeral was the most important. As we had the large family system, and usually the funeral at that time was longer in its period than now. Thus, Korean got accustomed to wear white clothes more and more.

### I. 緒 論

한민족은 스스로를 白衣민족이라고 부르려 만큼 그 역사가 길고, 노인으로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또 남

녀 모두 白衣를 입었다. 그래서 한민족의 白衣習俗의 유래와 원인에 대하여는 이미 學者들간에 여러가지 論議가 있어 왔다.

染料나 染色術의 결핍이라던가, 經濟的 要因이라고 하는 被動的 當爲로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원래 한민

족이 흰빛을崇尚하였다고 하는 등의 能動的 해석이 있었다.

崔南善은 「朝鮮常識問答」에서 “조선민족은 옛날에는 太陽을 하느님으로 알고 자기네들은 이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었는데 太陽의 光明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빛을 神聖하게 알아서 흰옷을 자랑으로 입다가 나중에는 民族이 風俗을 이루고 산 것입니다.”<sup>1)</sup>라고 하였다. 또 崔鉉培는 「朝鮮民族 更生の 道」에서 白衣風習의 外的 原因의 하나로 染料의 발달이 없는 것을 들고, 喪服의 遺習에 대해서도 “이조에 있어서 그 풍속을 助長한 一因이 될듯도 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편 그는 “그러한 外的 조건보다는 더 힘있고 깊은 것은 民族의 心理에 터잡은 內的 原因이 아닐까”라고 하고, 그 이유를 民族이 清白을 좋아함, 民族의 自尊心과 保守性을 들었다<sup>2)</sup>.

日本人중에 村山智順은 「朝鮮의 服裝」에서 白衣 習俗에 영향을 준 要因에 대해 “첫째, 染料가 발달되지 못하여 麻·綿등을 그대로 입었던 것이 習俗이 됨. 둘째, 원래 禮를 重視하여 喪服을 많이 입었던 것, 셋째, 朝鮮人은 衣服이 清潔한 것을 좋아함. 넷째, 예로부터 白色을 好尙해왔다”고<sup>3)</sup> 하였다. 또 鳥山喜一の 「鮮民白衣考」에서 그의 白衣論을 정리하면, 白衣는 東北古代民族間에 공동으로 存在하였는데, 그것은 衣料가 똑같이 麻·穀 등의 植物性을 주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 고려朝 특히 이조의 民庶가 白衣에 집착한 것은 庶人에 대한 國家的 通制와 經濟的 窮迫때문에 白衣는 庶民의 常服으로서 存在해온 것이고, 染料관계는 미흡하고, 계속된 國恤에 기인한다는 것도 一時的, 우연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다가 기백년래에 답습되어온 이 價値는 차차 기후와 매력을 주어, 반도민족의 趣味性이 그것을 選擇케 하였다”<sup>4)</sup>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金東旭은 그의 「韓國 服飾史」에서 한국 복식의 특질을 요약 정리하면서 白衣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白色衣를 숭상하는 것은 애초에는 경제적 요건에서 支配되었었으나, 나중에는 儀式服裝으로서의 喪服의 영향으로 습성화되었다”<sup>5)</sup>고 하였고, 金元龍은 한국 미술의 특질을論하면서 “한국인들이 白色을 좋아하는 것은 다 아는 事實이며, 그 원인에 ‘대하여는 國喪에서 시작되었느니, 白色을 崇尚하느니하는 여러가지 說이 있지만, 이것은 필경 人工을 거쳐하는 한국인의 어쩔 수 없는 습성에서 온 것인지 모른다. 즉 織物을 자연 그대로 입었기 때문이다”<sup>6)</sup>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여러가지 測面에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白衣를 經濟的으로 본다면 확실히 原始的이다. 그러나 일찍이 賤民服으로 취급되어야 할 白衣가 法的인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上流層에도 好尙되어, 고려도경에도 王服에 관한 記錄 중에

或平居燕息之時 則皂巾白紵袍 與民庶無別也<sup>7)</sup>

라 하여 심지어 王까지도 平居燕息時에는 皂巾에 白紵袍여서 일반 서민과 다름 없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왕조에는 李瀼이 星湖僞說類選에서

東俗以笠子及白布道袍爲最尊之服 吉凶通用<sup>8)</sup>

이라 한 것처럼 검은 갖에 흰도포는 最尊服으로서 吉凶을 막론하고 통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 民族이 上古時代로 부터 조선왕조 末까지 尙白의 風俗을 이루어온 傳統性과 原型發散의 基底에는 傳承體系를 통한 어떤 變化動因이 存在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民衆意識, 民族性이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太陽崇拜, 光明 추구 등의 原始宗教的인 측면과, 民族의 性品중에 自然에의 順應, 清白, 清潔心理라든가 기타 美意識에 대한 觀點으로는 拙稿 “白衣에 나타난 韓國人의 色彩意識”<sup>9)</sup>에서 고찰한 바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白衣 習俗에 관하여 經濟·社會的인 面으로 국한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社會的, 經濟的 環境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보면

扶餘 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袍袴履革鞞<sup>10)</sup>

이라 하여 扶餘는 「白」을 崇尚하고 白色袍와 袴를 입었다고 하였는데, 扶餘외에도, 예맥, 高句麗, 沃沮등 그 言語, 衣服, 風俗등이 대체로 동일하였는데 그 중 특수 共通文化가 白衣風習이었다.

升辰……其人形皆長大美髮 衣服潔清<sup>11)</sup>

新羅……衣服略高句麗百濟同 服色尙素<sup>12)</sup>

百濟……衣服潔淨略與高句麗同

呼帽曰冠曰複衫袴曰<sup>13)</sup>

新羅……其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而朝服尙白<sup>14)</sup>

한편 白衣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古代에 있어 勿吉 靺鞨등에서도 好尙하였다고 漢書에 傳하고, 내려와

女眞族에서도 취하였다고 한다<sup>15)</sup>.

원래 한민족의 原始문화는 北方文化圈의 것이 많아, 山嶽崇拜, 樹木崇拜, 岩石崇拜, 기타의 「에니미즘」 「샤마니즘」 등의 原始信仰에 있어서도 그 共通信仰을 볼 수 있는데<sup>16)</sup> 한민족의 白衣好尙도 그 중 하나로 古代 東北方民族間에 널리 분포되어 있던 것이라 하겠다<sup>17)</sup>.

그런데 古代인들이 공통적으로 白을 숭상한 것은 白을 神聖視하였다는 思想的 근거도 있겠지만 古代에 있어서의 白衣風俗은 아마 衣服의 材料 自體에 더 큰 원인이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古代로 부터 가장 많이 쓰인 것이 麻布 등이었고, 그 다음이 絹布이었다. 그 모두가 絳色은 素色이다. 女眞에서도 당시 麻·穀 등이 衣服材料로 쓰여 織布를 염색하지 않고 素色 그대로를 입었었다<sup>18)</sup>. 古代 「이집트」인들도 太陽을 崇拜하여 白色衣를 많이 입었고, 「트라이앵글러 에이프런」 (Triangular Apron) 같은 복식은 그 형태도 太陽光線을 상징하는 放射型 주름을 잡아 만들어 졌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衣料 역시 「린넨」이었고, 그 자신 自然的 白色이라는 점에서 信仰의으로도 특징지어지고 있다고 하겠다<sup>19)</sup>.

그러므로 한국의 白衣는 본래 原始的인 것임을 고려할 때 韓國의 白衣習俗은 社會的, 經濟的인 測面에서 再檢討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조선왕조 世祖代의 集賢殿 直提學이었던 染誠之의 上疏文을 보면

定服色 蓋服色之定 所以辨上下 風俗不可不嚴也 元人尙白 大明尙黑 以至日本尙青 皆有一定之制 吾東方朝冠公服 實倣中國 而常時好着 白衣 任用雜色其爲 鄙俚<sup>20)</sup>

라고 하여 나라마다 一定한 制度가 있어 元人은 白을, 明은 黑을, 日本은 靑을 숭상하는데 우리나라도 朝冠公服은 中國을 모방하지만, 常時は 白衣를 好着하니 禁하지 말고 許用토록 청한 바 있는데, 그의 訥齊集에서는

臣竊觀 吾東方地齊民貧 自古好着白衣 檀君朝鮮 箕子朝鮮 以至新羅 俱享千年 高句麗享七百年 百濟六百年 前朝王氏亦五百年 未聞禁灰色白色而致也 然則欲禁灰色者 其妖言也 且以五行相克爲言 則中國之人 不着青衣久矣 請勿禁灰色白色 許令任意穿着<sup>21)</sup>

이라 하여 우리나라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옛부터 白衣를 好着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국에서 여러가지 色衣가 채용되지 않고 原始的 白衣를 固守하고 있었던 것은 생활자체가 淸淨되

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韓國史에서는 古代의 要素가 中世에 실지어는 近代에 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유착성, 정체성은 일반 庶人 生活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固型的 社會 構造속에서 農民社會는 原始 村落 共同體의 遺制가 近代에 이르기 까지 남아 있어, 자연 經濟形態도 自足經濟를 면치 못하였다.

이와 같은 亞細亞의 生産樣式에 의한 停滯性 理論은 그 始初가 實證的 토대위에서 論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異論이 있지만, 農村 庶人 한국 대다수 庶人들의 服色뿐만 아니라 服飾 자체도 수천년동안 별 淸新이 없었던 것은 그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다<sup>22)</sup>.

한국의 白衣와 直接的인 關係를 가진 衣料生産 부문에 대하여만 보아도 역시 自給自足を 원칙으로 하였다. 一般 農民들은 自家 需要品을 生産하는 외에 거의 商品 購買力을 갖지 못하였으니 衣料生産이 沈滯되지 않을 수 없었다<sup>23)</sup>.

또 한편 朝鮮王朝의 貢租정책은 正布(五升麻布)와 綿布徵收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軍用이나 官吏의 現品 支給이외에도 對外貿易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므로 白苧布 등의 徵收가 加重되었다. 더군다나 中央集權的 官僚主義속에서 양반들은 身分의 淸潔을 確固하게 굳어져 法制上, 社會上으로 여러가지 特權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일반인에 대한 橫暴가 심하였다. 이러한 양반들이 庶人에 대한 苛酷한 苛斂誅求는 一般 農民을 生活難에 허덕이게 하였고, 자연 農民들의 衣料生産 意慾을 低下시켰다. 文獻備考에

我國民 貧而無剩財 耕田而食 織布而衣 雖有以工商爲業 不過土木皮草之器 麻絲米穀之用 互相資選 纔取者給而 猶有飢寒 流徙之民 以向餘財 蓄信者取錢<sup>24)</sup>

이라 하였듯이 農民들은 최저한의 生活을 淸淨히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固型的 社會構造와 原始的 經濟構造, 또 양반계급의 苛酷한 榨取 속에서 일반 庶人들은 原始的 素服에 머물러 있는 정도의 여유도, 최소한의 美意識을 개발할만한 刺戟도 없었던 것이다. 실을 뽑아 原色(素色) 그대로의 천을 짜 옷을 만들어 입기에도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 Ⅲ. 階級的 統制

庶人의 服色은 國家의 淸潔을 爲한 規制를 당하였다. 高麗

史 卷八十五에 보면

新羅之時 公卿百寮庶人衣服鞋襪 各有品色 公卿百寮 朝會則著公闕具穿執 退朝則遂便服之 庶人百姓 不得設文彩 所以別貴賤尊卑也 由是公闕雖非土產 百寮自足用之 我朝自太祖以來 勿論貴賤任意服着 官誰高而家貧 則不能備公闕 雖無職而家富 則用綾羅錦繡 我國土宜好物少而麤物多 文彩之物皆非土產 (中略), 庶人不得着文彩紗縠 但用紬絹<sup>25)</sup>.

즉 庶人들은 지배층의 계급의식때문에 衣服에 色彩나 縐등으로 수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階級을 服飾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부터였다. 經濟階級이 分열되고, 身分階級이 출현한 社會의 分化와 함께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階級的 權威主義는 服飾上 뚜렷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服色은 階級을 표시하는 가장 쉬운 方法의 하나가 되었다. 太祖實錄에

癸酉 憲司上言 先王衣服之制 尊卑有等 正閒之色 不可紊亂也 我國家上下服用 尙未有章 願自今進上服用 皆正色 凡男女黃灰色縞素之衣 一皆祭斷 上允之<sup>26)</sup>

라 하여 上下와 尊卑를 기르기 위하여, 王服色인 黃色을 禁함과 동시에 士大夫는 灰色, 白色도 庶人과의 구별을 위해 禁斷하였다.

梁誠之는 그의 訥齊集에서,

但近日禁灰色之後 以自上公卿 正兵及工商賤隸 皆着土黃 上下至爲無等<sup>27)</sup>

이라 하여 今日 灰色을 禁하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上下가 無等하게 된 것을 개탄하고 있다. 丁若鏞도 그의 牧民心書에서

辨等者 安民定志之要義也 等威不明 位級以亂 則民取而無紀矣(中略), 當室車乘衣服器用其僭侈踰制者 悉宜嚴禁<sup>28)</sup>

이라 하여 上·下의 等級을 辨別하는 것이 民志를 安定하는데 제일 필요하니 紀綱을 세우기 위해 衣服등에 구별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衣服禁制라 하여서 個中에는 이를 經濟的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中央集權의 封建社會에서 階級的 既存秩序를 維持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固守하려는 秩序主義와 權威意識을 外形의 服飾으로서 나타내려 하였던 것이다.

특히 中央집권적 요소가 행하여졌던 우리나라에서는 貴族層에서는 복잡한 染色, 文樣의 기술이 진보했음을 볼 수 있으나 서민층에서는 原始的 白衣를 상용하고 있다. 이 모순된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 IV. 조선왕조 禮敎 및 喪服과의 관계

한국에서는 儒敎의 家族本位思想으로 家禮는 諸禮의 근본적 規範으로 固化되고 社會의 일반 질서를 지키기 위한 道德이거나 제도이거나 습관이거나 모두가 禮라는 것으로서 이를 일괄하게 되었다. 그것은 조선왕조에 이르러 더욱 심하게 되었다.

儒學思想은 비교적 理知的 貴族의 學究的 理念임에도 불구하고, 儒學이 한국인 民族全體의 思想이나 生活에 준 感化와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李能和는 “조선왕조 이래 儒敎로서 백성을 지도하기 시작하여 性情을 薰陶하고 思想을 提두리지어 慣習化하고, 風俗化하여 이로서 온 朝鮮半島를 통틀어 순량은순한 백성되게 하여 그들을 모두 特權階級の 노예로 만들었다”고 하였듯이 이러한 조선왕조 禮敎가 한국의 白衣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芝峰類說 卷之三에 보면

東方之人 雖曰好着白衣 然有禁制 故先王朝猶有白衣禁亂 士人無職者 出入亦穿紅衣直領 餘幼時及見之 蓋嘉靖乙丑以後 累經國恤 乃着素衣 遵之風俗 今則紅直領絕無 而拳國皆衣素 華人笑之<sup>30)</sup>

라 하였다. 즉 東方人은 白衣를 崇尚하였으나 白衣着用을 금지하였다. 宜祖朝에 또 다시 白衣着用을 금하니 士人과 無職者는 出入時 紅直領을 着用하였다. 明朝 嘉靖 乙丑 이후 계속 國恤이 있어 白衣着用한 것이 習慣같이 되어 紅直領 着用하던 것은 사라지고 國內에 白衣着用한 者가 많아 中朝의 嘲笑를 샀다고 하였다.

東國文獻備考에도

肅宗十七年 申白衣之禁 國法元有禁白衣之制 自明宗乙丑以後 累經國恤 仍着素衣 此爲華人所笑<sup>31)</sup>

라고 기록되어 동일한 見解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明宗乙丑以後의 잇달은 王室의 大喪으로 喪服으로서의 白衣가 나라에 全般的으로 浸透하게 되었다고 하는 喪服의 遺習說은 以後 조선文人들 사이에 인정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李圭景의 五洲文長箋散稿나 李裕元의 林下筆記, 李肯翊의 燃藜室記述<sup>32)</sup>등에서도 明宗乙丑以後

의 거들됨 國恤에 기인하였다고 하는 동일한 문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鳥山喜一은 “단지 一時的 或은 一部的 流行이 오랜 全般的 風俗의 특징을 이루고 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라 하고 “芝峰類說의 主張과 같은 조선왕조 明宗乙丑以後 계속된 國恤에 기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一時的 現象의 우연한 影響일 뿐이다.”<sup>35)</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先儒들의 喪服의 遺習說에 대하여 단지 一時的 或은 一部的이라 일축하기 이전에 잠시 숙고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冠婚喪祭의 四禮中에서도 冠婚의 禮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오직 死祖를 위한 喪祭禮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士林·朝士간에 일어난 黨爭도 喪禮의 服制 문제로 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조선왕조 禮敎의 성격을 고려할때 喪服의 遺習說도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東洋의 禮 俗은 三禮(周禮, 禮記, 儀禮)가 그 祖宗이 되는 것이지만, 宋에 이르러 朱子家禮로 歸趨가 정하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上古時代부터 禮儀를 숭상하였지만, 國家儀式을 除外한 一般서민층으로서의 뚜렷한 成文은 거의 없다가 고려말 이후 朱子家禮가 들어왔다. 이를 中心으로 國內 여러 學者들이 論爭을 거듭하여 제각기 家風을 숭상하였다. 그러다가 특히 조선왕조 증엽에 이르러 金沙溪의 家禮輯覽과 申義慶의 喪禮備要와 李陶菴의 四禮便覽들이 通俗의으로 流行되어 지금까지 展開되어 오면서 지나친 拘束과 까다로운 小節에 偏重되었던 것이다.

陶菴의 四禮便覽에 보면 다섯가지로 服을 입은 사람들이 각각 그의 服을 입고서 弔儀를 行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다섯가지 服制에 입는 것은 전부 麻布였다. 즉 斬衰에는 극히 추한 生布이요, 齊衰에는 다음으로 추한 生布, 緇年服에는 그 다음의 生布, 大功服에는 조금 추한 熟布, 小功服에는 조금 가는(細) 熟布, 緇麻服에는 극히 가는 熟布이다.<sup>36)</sup>

이렇게 보면 과거 한국의 庶人들이 常時입어야 했던 粗硬한 베옷이 바로 喪服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朝鮮王朝, 白衣禁令의 尙당수가 白衣가 喪服과 같다고 하여서 내려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즉

明宗朝曹植疏有音哀服素亡國之象之語故洪燾爲都憲痛禁白衣 士人以上表單衣皆用桃紅行之五六年還止.<sup>35)</sup>

라 하여 明宗朝 曹植이 疏曰, 都憲은 白衣着用을 일체 禁하고, 洪燾은 素服입고 애통하게 우는 것은 亡國之象이라하여 士人 이상이 착용한 單衣는 5~6년간 桃紅色이었으나 還止되었다라고 하였다.

白衣禁令은 고려말 忠烈王元年 六月에

東方本位色當尚青而白者者金之色也 國人自着我服多袍以白紵衣 木制於之象也 請禁白色服 從之<sup>36)</sup>

즉 東方은 靑이고 靑은 木인데 白은 木을 制하는 象이니 白色服을 禁하여 달라고 해서 王이 이에 따랐다고 한 이후 시작되었는데 朝鮮王朝에는 太祖七年부터 이미

凡男女黃色灰色縞素之衣 一皆禁斷<sup>37)</sup>

이라 하였고 王朝末까지 자주 내려졌다. 그 이유로는 첫째 道說의 讖緯說에 의거한 陰陽五行 關係에서 禁하였고, 둘째 階級的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士官들의 白衣着用을 禁하였고, 셋째로 明宗朝 曹植의 上疏에 있는 바와 같이 白色衣는 喪服과 같다는 데서 禁하였던 것이다.<sup>38)</sup>

한편 喪服을 입어야 하는 喪期에 대하여 알아 보던 經國大典 卷三 禮典에 父母는 三年服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軍士 및 庶人은 百日로 하되 軍士도 원할 경우에는 三年服으로 행하도록 단서를 붙이고 있었다.<sup>39)</sup> 그런데 中宗實錄에는 (中完十一年 九月)

上曰 父母之喪 士大夫則皆行三年 而庶民則不然 此不可也 雖有欲行三年者 而使不得行此尤非也 待讀官李清曰 爲親之心無上下貴賤(下略)<sup>40)</sup>

이라 하여 父母를 생각하는 마음에는 上下 貴賤이 없으므로 庶民들도 지금 士大夫들처럼 三年喪을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中宗十一年 趙光祖 一派의 儒敎의 政治改革 바람에 上下 구별없이 三年喪을 치르게 하니 이것이 바로 國風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sup>41)</sup>

民家에서 뿐만 아니라 國喪중에도 白衣를 입었다. 世宗 四年 十月에는

禮曹啓國喪三年之內 大小人員皆服縞素新婚之家宜用吉服<sup>42)</sup>

이라 하여 國喪三年內에는 大小人員 모두 素衣를 입고 新婚家에서만 吉服을 입을 수 있다고 하였다.

世宗 二十八年 三月 禮曹 許定 王妃喪制에도 文公家禮와 朱子家禮에 의하여 지위에 따라 喪服이 엄격하게 제정되었는데, 卒哭後에도 文武百官 이하 大小人員이

모두 白衣에 黑角帶로서 3年을 마치도록 하였으며, 庶人 男女 및 僧徒는 國喪中 笠, 白衣, 帶를 하고 13日로 除服하였다<sup>43)</sup>. 여기서 一般 庶人들은 古代로부터 常時 주로 白衣를 着用해 왔고 白衣 禁令도 士大夫들을 상대로 한 것이지 庶人들은 白衣를 禁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士大夫들은 國喪 3年간 白衣를 입게 되므로 明宗 乙丑 이후처럼 불행하게도 땀이 연속될 경우에는 白衣가 상당히 장기간 계속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현실적 服飾生活 자체도 이 喪服에 견제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喪服을 입어야 하는 喪服이 길고, 親族범위도 넓어서 白衣가 習俗化, 正當化되는 데에는 이 喪服이 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 V. 結 論

이상에서 白衣에 영향을 준 社會的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는데 이에 관해서 평소 學者들간에 단편적 論議는 있어 왔지만, 本稿에서 종합 고찰의 기회로 삼아 論하여 보았다. 部族 國家시대로부터 好尙되어 오던 白衣는 近世에까지 默守되어 왔으니, 白衣는 곧 民衆의 服色이었다.

더군다나 고려시대에는 王도 燕居時 便服으로는 白紵袍를 입어 庶人과 다름없었다고 하였고, 조선왕조시대에는 끊임없는 白衣 禁令에도 불구하고 兩班層에서도 흰 도포를 입는 것이 儀禮의으로 된 것은 더욱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韓國의 白衣를 경제적 면으로 고찰해 볼때 우선 白衣는 原始性을 지닌 것이라는 것이다. 古代人이 太陽을 숭배하는 意味로 白衣를 好尙하였다고 하는 것도 기실은 衣服材質이 그 자신 自然的 白色이라는 점에 특징지워졌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白衣에 영향을 준 社會的인 요인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의 白衣風俗은 한국의 經濟的, 社會的 構造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즉 白衣文化라 하지만, 실상은 庶民生活의 정체현상의 하나로서 한국은 社會 구조적으로도 停滯되어 古代的 白衣가 일방서민들간에 默守되어 왔다고 하겠다.

둘째, 庶人의 服色은 國家的으로 통제를 당하였기 때문에 庶人은 아무리 富가 있더라도 허용된 날 이외에는 色彩衣를 입을 수 없었다.

셋째, 禮敎의 영향으로 現實的 服飾生活 自體가 喪服에 어느정도 견제당하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선왕조 儒敎는 그 形式的인 面만을 강조하여 冠婚喪祭

의 禮를 至上의 規範으로 삼고 그 중에서도 특히 死祖를 위한 喪祭禮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韓國은 喪服을 입어야 하는 시간이 길고 특히 親族範圍가 넓어 계속 喪服을 입어야 하는 수가 많으므로, 古代로부터 내려오던 白衣가 正當化 習俗化되는 데에 이 喪服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한다.

## 引 用 文 獻

- 1) 崔南善, 朝鮮常識問答·朝鮮常識, 六堂崔南善全集 IV, 玄岩社, 47, (1973)
- 2) 崔鉉培, 朝鮮民族更生の道, 正音社, 78~79 (1930)
- 3) 村山智順, 朝鮮의服裝, 朝鮮總督府, 39, (1927)
- 4) 鳥山喜一, 滿鮮文化史觀, 刀江書院, 276~280 (1935)
- 5) 金東旭, 韓國服飾史, 韓國文化史大系, 高大民族文化研究所, 23, (1964)
- 6) 金元龍, 韓國美術史, 汎文社, 4, (1973)
- 7)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七 冠服
- 8) 李瀾, 星湖僊說類選卷二下 人事篇二 論禮門禁器禁服
- 9) 李明姬, 白衣에 나타난 韓國人의 色彩意識, 全州大學論文集 第六輯 (1977)
- 10) 三國志 魏志 東夷傳 扶餘
- 11) 後漢書 韓傳 卷百十五, 三國志 魏志 東夷傳 升辰傳
- 12) 隋書八十一 新羅傳
- 13) 南史 卷七十九, 梁書 卷五十四
- 14) 舊唐書 卷百九十九 新羅傳
- 15) 鳥山喜一, 前掲書, 10
- 16)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I, 高大民族文化研究所, 350, (1964)
- 17) 崔南善, 前掲書, 47.
- 18) 鳥山喜一, 前掲書 278
- 19) Francoir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and Hudson, 92, (1967)
- 20) 世祖實錄 卷三, 31장
- 21) 梁誠之, 訥齊集卷四, 便宜, 32장
- 22) 金東旭, 李朝中後期 女服構造, 亞細亞研究 제 3 號 (1969)
- 23) 李文恒, 李朝時代의 衣料生産에 관한 考察, 亞細亞女性研究 1集, 3, (1962)
- 24) 增補文獻備考, 財用考六, 錢貨條
- 25) 高麗史 卷八十五, 刑法禁令
- 26) 太祖實錄 卷十四

- 27) 梁誠之, 訥齋集卷四
- 28) 丁若鏞, 牧民心書, 卷六十五, 禮典六條 辨等
- 29) 李能和, 朝鮮女俗考, 東洋書院, 94, (1927)
- 30) 李晔光, 芝峰類說 卷三, 君道部 法禁條
- 31) 東國文獻備考 卷三十六 禮考, 章服條
- 3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十五, 道袍辨證說  
李裕元, 林下筆記, 卷十五 文獻指常編 白衣禁  
燃藜室記述 別集 卷十三(石宙善: 韓國服飾史, 寶  
晉齋, 176, (1980)에서 轉載)
- 33) 鳥山喜一, 前掲書, 274,
- 34) 洪淳泌, 增補四禮便覽, 博文書館, 103, (1929)
- 35) 燃藜室記述 別集 卷十三(石宙善: 前掲書 p.145에서  
轉載)
- 36) 高麗史 卷八十五 刑法 禁令
- 37) 太祖實錄 卷十四 16장
- 38) 李明姬, 韓國白衣에 관한 史的 考察, 全州大學論  
文集, 第五輯
- 39) 經國大典 卷三 禮典 五服
- 40) 中宗實錄 卷二十六 23장
- 41) 石宙善, 前掲書 109
- 42) 世宗實錄 卷十八 6장
- 43)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大出版部, 554, (1977)